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71호 【루계 제25314호】 주체105(2016)년 6월 19일 (일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으로 영원히 백승을 떨칠것이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으로 빛나는 가장 권위있고 강위력한 당이다.

당 제7차대회를 계기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높은 존엄과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전당, 전군, 전민이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총정의 200일전투에 총매진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53(1964)년 6월 19일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이날이 있어 우리 당은 수령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어머니당, 강철같은 조직력과 전투력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빛을 뿌리게 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6월 19일은 10월 10일과 더불어 절세의 위인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는 혁명적명절이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에 대한 무한한 신뢰심을 안고 이날을 맞이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지금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반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수반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여나갈것입니다.》

혁명적당건설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차대한 문제로 나서며 이 성스러운 위업은 걸출한 령도자를 모실 때 빛나게 실현되게 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당과 혁명의 령도자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의 당건설위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다.

《ㅌ. ㄷ》에서 뿌리내린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고 그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시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신조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근 반세기에 걸치는 장구한 로정은 당의 사상건설, 조직건설, 령도예술건설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당이 지주시대 혁명적당의 본보기로 위용떨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가 확고히 실현되여온 긍지높은 행로이다.

특히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이후 수십성상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찬연히 빛나고있다. 세계적인 대정치풍파속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이 변함없이 고수되고 조직사상적기초가 더욱 튼튼히 다져질수 있은것도, 희악의 역경속에서 전당이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최정예의 전위대오로 자라날수 있은것도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강철의 신념,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우리 당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나갈수 있는 억년기틀을 마련해놓으시고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길수 있는 만년토대를 다져놓으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대와 력사,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공적중의 공적이다.

참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수령의 당, 선군혁명의 참모부, 전정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되여 혁명적당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쳐온 우리 당의 영광찬란한 력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활동력사이며 지주시대의 방향타를 억세게 틀어쥐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온 우리 당의 업적은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령도사와 하나로 잇닿아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끌어오신 우리 당은 오늘 자기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당을 더욱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데서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은 강령적지침으로, 만년초석으로 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은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충실한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강화발전시키는 생명선이다.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조직이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은 혁명적당건설에서 근본문제로 나선다.

당을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당건설사상과 리론에서 기본핵을 이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으며 전당 김일성주의화방침을 제시하신것은 우리 당력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순결하게 계승하시면서 선군정치리론을 비롯한 새로운 사상리론들로 더욱 발전풍부화하시고 당사상사업의 유일판리제원칙에 기초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유일사상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당이 수령의 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사상과 신념의 결정체로 강화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수령의 령도적권위를 절대화하고 결사옹위하는것을 중심과업으로 틀어쥐시고 전당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적단결을 이룩하고 수령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혁명적규률을 확립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지니시고 우리 당을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로동당은 천만년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얼마번 바뀌여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이 확고히 보장된 가장 공고한 조직적전일체로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백전백승의 당으로 만방에 존엄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건설과 당활동의 근본지침으로 틀어쥐고 전당이 령도자와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해나가는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생명선으로 하고있기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은 더욱 철통같이 다져지고있으며 새로운 주체100년대진군길에서 수령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본태가 굳건히 고수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위용을 영원히 높이 떨쳐나가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은 우리 당을 공고한 대중적지반과 강력한 군사적지반을 가진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근본초석이다.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당은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하지 않으며 무적의 총대를 틀어쥔 당은 필승불패이다.

이민위천은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의 좌우명이였으며 선군은 장군님의 혁명사상이고 혁명실천이였다.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는 인민대중이며 우리 인민은 오직 《위대한》이라는 호칭으로만 부를수 있다고 하시며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인민사랑의 숭고한 경륜을 펼치시고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행렬차를 쉬임없이 달리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력사상 처음으로 정치와 군사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시고 혁명무력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는 강위력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은 우리 당력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 인덕정치는 우리 당의 혁명령도방식,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 당이 그처럼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속에서도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인민들과 뜻과 정으로 혼연일체를 이룬 혁명적당,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인민군대를 당에 끝없이 충실한 무적의 혁명적당군으로 키워 당의 억척의 지지점으로 되게 함으로써 선군혁명의 위력한 참모부로서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다하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당건설사상과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당 제7차대회를 맞이한 뜻깊은 올해에 우리 당이 전략적결심에 따라 민족사적인 특대사변들을 련이어 안아오고 최강의 정치군사력에 토대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고있는 장엄한 현실은 당의 대중적지반, 군사적지반을 튼튼히 다져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오늘 우리 당이 의거하고있는 혁명승리의 기반도 인민군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랑과 정으로 키우신 훌륭한 우리 인민,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천하무적의 군력이 우리 당의 사상과 위업을 믿음직하게 떠받들고있기에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백승을 떨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은 우리 당을 언제나 활력에 넘쳐 전진하고 전투력이 강한 전도양양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혁명을 이끄는 당의 공고성과 생명력은 그 본성적요구에 맞게 당사업과 당활동을 진행하고 끊임없이 혁신해나가는데 있다.

우리 당은 전당에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 진취적인 사업기풍이 철저히 확립되여있는 생기발랄한 당이다.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 사회주의적원칙을 견결히 고수하며 사소한 침체나 탑보도 없이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고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활동방식, 령도방식으로 되고있다. 오늘 전당이 사상의 무기를 메고 만리마의 기상이 나래치는 대고조적전장들에 들어가 화선식, 침입식으로 정치사업을 펴기있고 박력있게 틀어대며 당사업전반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가고있기에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천만군민의 혁명적열의는 날에날마다 고조되고있다.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면모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데 있다. 위대한 장군님식 사업방법은 인민들속에 들어가 대중의 마음을 움직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혁명과 건설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며 적시과 들을 때적하고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실속있게 풀어나가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이다. 우리 당 전투기록집에 아로새겨진 총정의 대전실전투들과 1970년대를 들었다놓은 혁명의 목소리, 고난과 시련속에서 창조되고 타오른 혁명적군인정신과 강계정신, 성강과 라남, 강선의 불화와 함남의 불길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적인 사업방법의 거대한 생활력에 대한 증시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신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은 우리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고귀한 귀감이다. 오늘 천만군민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는 우리 당의 사업방법은 위대한 장군님식 사업방법의 빛나는 계승이며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정화인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도 장군님의 인민관에 바탕을 두고있다. 전당이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당사업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기에 우리 당의 구상과 결심은 언제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지향찬 승리로, 실천으로 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을 일판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조선로동당이 앞으로도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나가게 하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진군길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고 모든 당사업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로 확고히 지향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 당 제7차대회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도록 하신 원수님의 령도는 장군님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이실 철석의 신념의 분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존엄과 권위가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조국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민족사적승리와 천지개벽의 새 력사, 만리마시대가 펼쳐지고있는 격동적인 현실을 체험하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중앙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고갈 불타는 맹세를 억세게 가다듬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더욱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감으로써 조선로동당의 승리와 영광의 력사를 줄기차게 이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혁명업적은 우리 당의 명맥을 이어주는 혈통이며 우리 당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을 추동하고 떠밀어주는 투쟁의 기치, 승리의 원천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수령영생의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대를 이어 높이 받들어모셔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사상과 리론, 장군님께서 주체의 당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견결히 옹호고수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을 당의 강령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양보나 드팀도 없이 관철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을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는데 지향시키고 복종시켜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적극 따라배우고 실천에 구현해나가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계기로 그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탁월한 사상과 령도력, 뛰여난 자질과 품격을 지니시고 우리 혁명과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더욱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전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여 사상과 신념의 결정체로 다지는것을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립하는데서 기본핵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어떤 역경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견결히 옹호하며 당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당안에 단결의 정신, 단결의 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수령결사옹위의 관점과 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예리하게 보고 사업을 전개해나가며 당의 유일적령도체계와 어긋나는 사소한 현상과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200일전투는 당 제7차대회정신을 보위하고 당의 결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라는 진리를 다시한번 확증시키기 위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며 우리 당의 권위와 령도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는 총정의 대전투이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시려 불철주야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공격속도에 전진의 보폭을 맞추며 200일전투의 철야진군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인민군장병들은 당이 준 과업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서 결사관철하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을 계속 힘있게 떨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70일전투에서 승리한 기세를 200일전투에서 계속 고조시키며 당 제7차대회과업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총공격전, 총결산전을 힘있게 벌려 공격성과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청년들은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창조한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답게 피끓는 청춘의 심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200일전투장들마다에서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영예를 남김없이 펼쳐야 한다.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당조직들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200일전투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도록 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대한 학습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200일전투에서 최상의 성과, 최고의 실적이 이룩되도록 정치사상사업을 침입식으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당의 방침과 결정, 지시들을 즉시에 전달로치하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당 제7차대회과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상이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우리 당의 고유한 령도방식을 철저히 구현하여 전체 인민이 총정의 200일전투의 영예로운 참전자, 돌격투사가 되도록 이끌며 온 나라에 대비약, 대혁신의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이 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모두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9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방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국방종합대학이 주체적국방과학기술인재양성의 최고전당으로 장성강화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학에서 조선로동당을 보위한 사람들을 수많이 배출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학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학의 일군들, 교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께서 국방종합대학을 시찰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시찰시 《동방의 핵대국, 군사회강국인 선군조선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빛내여나가는》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것을 국방종합대학의 기본임무로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현대적인 교육설비들도 보내주고 수영장과 축구장도 꾸려주시겠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국방종합대학을 국방과학을 떠메고나갈 인재들을 키워내는 대학으로 만드시려는 의지를 표명하시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중국의 홍콩 《대공보》와 봉황위성TV방송, 환구망, 국제방송망, 민주쏭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도 우와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중국의 《로동신문》, 홍콩 《대공보》와 봉황위성TV방송, 미국의 UPI통신, 세네갈신문 《더 보 뽈레르》, 기네 국내, 국제방송, 7개민족어방송과 민주쏭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류경김치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백두산체스프조선친선협회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개건된 만경대소년단야영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민주쏭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조선소년단창립 70돐 경축행사 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관람하신 소식을,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은 이 소식들과 함께 새로 일떠서고있는 룡악산비누공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올렸다.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한편 인디아신문 《월즈 미러》 1일-15일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일떠서고있는 보건산소공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실었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9일부터 11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류경김치공장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공업화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김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각 도들에도 현대적인 김치공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디아의 지 뉴스TV방송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령도자의 사랑에 떠받들려 새로운 김치공장이 일떠섰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류경김치공장을 조선의 김치공업화의 본보기, 표준단위로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류경김치공장에서는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김치를 집들에서 담그어 먹는것보다 더 맛있게 만듦으로써 인민들이 항상 즐겨찾는 김치, 세계에서 으뜸가는 식품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말레이시아의 인터네트신문 《더 스타 온라인》, 도이췰란드의 N-TV방송도 이 소식을 전하였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그이께서 새로 일떠서고있는 류경안과종합병원 건설장과 보건산소공장건설장, 새로 건설한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들, 우리 나라 소백수남자롱구팀과 중국 올림픽남자롱구팀간의 친선경기를 관람하신 소식을 올렸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창립 70돐 경축행사 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관람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여러 나라 인사들 강조

세계 여러 나라 정당지도자들과 각계 인사들은 조선로동당을 혁명의 참모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이것은 그들이 보내여오는 축전과 축하편지들에 뚜렷이 반영되여있다.

룡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국과 인민, 조선혁명에 무한히 충실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1964년 6월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하여 온 생애를 바치시였다.

투철한 신념과 용감성, 애국주의와 인민사랑의 정신은 그이의 생전의 변함없는 의지였으며 그것은 조선인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었다.

메바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주석의 이민위천의 리념을 계승하시여 조선로동당을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시였으며 강위력한 항도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고 격찬하였다.

이란이슬람료련합당 부총비서는 조선로동당은 적대세력의 온갖 제재와 압력속에서도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강화발전시켜오신 조선로동당은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강위력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였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말따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조선로동당을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령도하시면서 당의 창건자이신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당을 강화하는것을 기본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를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행동의 통일체로 강화발전되였다.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은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동지애에 기초한 당의 조직사상적단결을 공고히 다지는 사업에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시고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여 당을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을뿐아니라 세계적으로 높은 존경을 받고있다고 하였다.

불스까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하고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를 가진 불패의 대오로,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혁명의 참모부로 강화발전되였다.

조선식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세계에 빛내이신 탁월한 정치가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업적은 주체조선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준비위원회

로씨야에서 결성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준비위원회가 로씨야 까렐리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에서 9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로씨야 까렐리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윅토르 에고로브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며 조선인민의 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통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대계의 진로를 펼치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 나아가는 위대한 우리 당에 대한 감사와 신뢰의 정이 더욱 절절히 끓어넘치는 격동의 시기에 온 나라 천만군민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명절인 6월 19일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이 력사의 날을 맞으며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당,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백두산대국의 억년기틀을 다져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고있다.

천재적사상리론가이시며 절출한 정치가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을 령도하심으로써 《ㅌ, ㄷ》에 억센 뿌리를 둔 조선로동당은 명실공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나고 그 령도력과 권위, 당에 대한 인민의 지지와 신뢰가 비할바없이 높아져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발전에서는 전대미문의 거대한 전변이 이룩되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18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장인 인민문화궁전에는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반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완성의 휘황찬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심이 굽이치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휘날리는 조선로동당기폭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주체의 당기가 휘날리는 당중앙위원회 청사가 형상된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백두산모형과 《경축 52돐》이라는 글발이 절려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대회에는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로력혁신자들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리명수동지, 박영식동지, 양형섭동지, 리수용동지, 김평해동지, 리만건동지, 오수용동지, 박림수동지, 김영철동지, 김원홍동지, 최부일동지, 로두철동지, 리용호동지, 김수길동지, 조연준동지, 리병철동지, 노광철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책임일군들, 위대한 장군님의 을혼과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모범적인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시작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보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업적은 우리 당과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영원한 재보이다》를 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불패의 당, 존엄높은 우리 당의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한생이 어려있는 주체의 붉은 당기를 휘날리며 력사적인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해 총매진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간직하였다.

대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당건설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만대에 빛내이며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내세운 웅대한 강령을 실현함으로써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참가자들의 충정의 열의가 끓어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대회는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사상사업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생명선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날에날마다 영웅적위훈과 기적을 창조하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를 발표하신 21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주체84(1995)년 6월 19일에 발표된 이 로작은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사상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으로부터 사상사업의 기본임무와 내용, 원칙과 방법에 이르기까지 사상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강령적문헌이다. 로작에 제시된 사상리론들은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총진군길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지침으로, 백승의 기치로 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나가야 한다.》

사상은 사회주의의 생명이다. 사상에 의하여 향도되고 사상을 기본추동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사상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사회주의가 사상을 틀어쥐면 승리하고 사상을 놓치면 망한다는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사회주의성풍탑을 높이 쌓아올리는 근본비결은 사상사업선행에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주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과 형언할수 없는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고 강국건설의 새시대를 열어놓을수 있은것은 우리 당이 천만군민을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억세게 키웠기때문이다. 남들이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일심단결은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단결이고 우리의 무진막강한 혁명무력도 위대한 혁명사상과 불굴의 혁명신념을 만장약한 불패의 무장력이며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도 백두의 혁명정신의 확고한 계승의 결정체이다. 사상사업선행에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으로 존엄높은 우리 조국의 불패의 위력이 있다.

주체의 사상론을 만능의 무기로 틀어쥐고 이 땅우에 끝없이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다. 우리 당이 내세운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의 웅대한 과업도 사상의 힘이 안받침되여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대중의 정신력을 용솟음시킬 때 오늘과 래일,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새 기적, 새 신화들이 끊임없이 창조될수 있으며 모든 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수 있다.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 사상사업의 기본임무는 온 사회를 사회주의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적단계이다.

모든 사회성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만들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투쟁의 성과여부는 사상사업의 위력에 달려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사상사업의 총적임무로 내세우시고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를 비롯한 력사적인 대회들을 계기로 온 나라에 사상전의 불길을 끊임없이 지펴주시였으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만년초석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당사상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 근본적인 변혁이 이룩되였으며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신이 일어나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사상사업의 위력은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불패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모진 역경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억센 기상, 온 사회에 넘치는 숭고한 정신과 백절불굴의 투쟁기풍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천만군민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을혼을 뼈에 새기고 투쟁해나가는 력사적진군속에서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반석같이 다져지고 수령의 사상과 위업실현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는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대부대가 자라나고있으며 사회주의정치사상강국의 존엄과 필승의 기상이 만방에 더욱 힘있게 떨쳐지고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사회주의위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 당의 사상과 로선으로 튼튼히 무장한 군대와 인민이 있는 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사람들을 교양하고 발동하는 정치사업을 잘하여야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고 밝히시였다.

조선혁명의 력사는 자강력으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력사이며 자강력제일주의의 기반은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오직 자체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력자강의 정신이 우리 인민을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최강자로 키우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시켰다.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우리 당이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갈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최대로 발양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에 힘을 넣는것은 인민대중의 심장속에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과 자기 힘에 대한 확신, 비상한 창조적기백을 심어주기 위해서이다. 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난 경이적인 사변들과 우리 인민의 애국의 더운 피와 땀이 슴배인 고귀한 창조물들은 사상전의 불바람, 자력자강의 정신이 어떤 기적을 안아오는가를 실증해주고있다. 기적을 낳는 어머니는 대중의 정신력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기본열쇠는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사상사업에 있다.

오늘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충정의 200일전투장 그 어디나 사상전의 불도가니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립체적으로, 공세적으로 벌리는 현장정치사업은 려명거리건설장에서 짧은 기간에 살림집골조공사를 련이어 완성하는 놀라운 속도를 창조하게 하였으며 수천척 지하막장들과 험동벌들에서의 침입식정치사상사업은 사람들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어떤 형태의 제재와 압력도 자력갱생의 무쇠마치로 짓뭉개버리며 세계를 향해 과감히 돌진하는 조선의 불굴의 기상과 우리가 일단 마음먹은것은 다 할수 있으며 우리 힘으로 남들이 보란듯이 잘살수 있다는 우리 인민의 담대한 배짱은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자강력제일주의를 끊임없이 심어준 사상교양사업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사상전선이 들끓는것만큼 대중의 자력자강의 정신은 더 높이 발양되며 천만군민이 일떠선것만큼 사회주의강국건설이 다그쳐진다.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청년강국의 위용을 계속 높이 떨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사회주의의 위력은 사상의 위력이며 사상중시, 사상사업선행은 우리 조국이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빛을 뿌릴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다. 청년강국의 위용이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앙양한 전도이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청년중시를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고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우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청년교양에 큰 힘을 넣어왔다. 혁명이 전진할수록, 최후승리가 눈앞에 다가올수록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의 도수를 더욱더 높여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이다. 우리 당은 청년들속에서 5대교양을 더욱 강화하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통하여 청년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짤바람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왔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청년들에게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북돋아주고 혁명적랑만과 집단주의정신을 백배해주는 위대한 당의 따뜻한 손길아래서 우리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계승자들로 억세게 자라나고있다.

주체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대지에서 창조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되고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청년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때에 우리 청년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선봉대, 돌격대가 되고 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의 창조자로 성장한것은 청년교양을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내세우고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온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청년들이 우리 당의 마음의 기둥, 억척의 지지점이 되여 우리 사상, 우리 정신, 우리 문화를 굳건히 고수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떨쳐가고있는것이야말로 우리 조국의 크나큰 긍지이고 자랑이다.

사상을 백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승리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원칙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길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야 할것이다.

박사 박 희 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업적은 우리 당과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영원한 재보이다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계기로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당의 권위, 백두산대국의 위용이 최고의 경지에서 과시되고 당에 대한 인민의 신뢰가 더욱 두터워지고있는 뜻깊은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한두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되는 민족사적사변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에서 우리 당을 령도하게 되심으로써 《ㄷ. ㄷ》에서 시작된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력사가 줄기차게 이어지고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습니다.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에서 긍지높이 흥화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로정과 눈부신 성과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존함과 정력적인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6월 19일을 당창건기념일과 같이 전통적인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고있는것은 장군님께서 당건설과 당활동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칭송하고 빛내여가려는 드팀없는 신념과 철석같은 의지의 발현입니다.

절세의 위인을 모시고 혁명태운 한없는 긍지로 가슴설레이는 이 자리에서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신 우리 당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립니다.

동지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이끄신 장구한 력사적기간에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고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여놓으시였습니다.

지난 1960년대 중엽 세계정치무대에서는 더욱 로골화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대두한 현대수정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복잡한 사태들이 련이어 빚어지고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력사적시기에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것을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며 완성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내세우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당건설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과 본태가 고수되고 그 면모가 일신되였으며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이 비상히 강화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지난 세기 70년대와 80년대에 로동당시대의 일대전성기를 펼치시고 90년대에는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하며 강성국가건설의 활로를 열어제끼는 세기적인 기적을 이룩하시였으며 새 세기 진군의 나날에 민족만태의 번영을 위한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시였습니다.

력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같이 장구한 기간에 걸쳐 사회주의집권당을 진두에서 이끄시여 당사업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인류사에 길이 빛나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출한 정치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을 령도하여오신 전 행정은 독창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 탁월한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당,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건설하신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고있습니다.

당을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사상과 리론에서 기본핵을 이루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충실한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 전도양양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을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사상과 리론에서 기본핵을 이루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충실한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 전도양양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건설위업을 이끄시는 첫 시기에 벌써 전당을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혀주시고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당건설에서 중심과업으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의 당건설위업을 사소한 편향도 없이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기에 우리 당은 수백만당원들이 당중앙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치고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불패의 대오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우리 당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온 전당김일성주의화의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ㅁ.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우리 당이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존엄과 위용을 떨쳐나갈수 있게 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로 당과 혁명의 앞날을 내다보시고 당의 위업을 계승해나갈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와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이시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이 창건되여 70여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창당초기의 혁명적본태를 고수하며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계승해나가고있는것은 일찌기 당을 철저히 수령의 당으로 건설할데 대한 혁명적대강을 밝혀주시고 전면적으로 구현하여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견지명과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공고한 대중적지반과 강력한 군사적지반을 가진 불패의 당으로 건설하시였습니다.

당의 대중적지반과 강력한 군사적지반을 다지는것은 당의 존망,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며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인민들과 뜻과 정으로 혼연일체를 이룬 당,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여 주체의 혁명적당으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를 비롯하여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도 인민의 운명을 적극 보호해주고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헤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들고 그들의 정치적생명과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며 인민들은 당을 절대적으로 믿고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위대한 혼연일체는 우리 당과 혁명의 불패성의 근본원천으로 되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그 어떤 정치적풍파와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림없이 당을 견결히 옹위해나가는 무적의 혁명적당군으로 키우시여 우리 당의 군사적지반을 억세게 다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은 흥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혁명의 원리로부터 정치와 군사를 옳게 결합시키고 혁명무력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는 빛나는 귀감을 창조하시였습니다.

인민군대가 력사의 돌풍에도 끄떡하지 않고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사상과 신념의 강군,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은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입니다.

지난날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에서 막강한 군력을 자랑하던 군대가 총 한방 쏘지 못하고 당의 위업을 지켜내지 못한 비극적사태는 우리 당이 인민군대를 철두철미 당과 수령의 군대로 키워 당의 군사적지반을 굳건히 다져온것이 얼마나 현명하였는가를 힘있게 반증해주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주체의 령도방식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의 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굳게 믿고 인민대중에게 철저히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철칙으로 삼으시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나아갈 침로를 정할 때마다 인민을 먼저 찾고 인민의 소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였으며 인민의 진정에서 무궁무진한 힘을 얻군하시였습니다.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면 못해낼 일이 없고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 투철한 신조를 지니시고 한평생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울려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철주야의 현지지도의 거룩한 자욱마다에서 혁명적군인정신, 강계정신이 나래치고 성강의 봉화가 타올랐으며 새 세기 산업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세상을 놀래우는 사변들이 다제단으로 일어났습니다.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결코 그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하여 얻어진것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을 믿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이끌어오시며 안아오신 현명한 령도의 귀중한 결실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을 령도하여오신 력사적행로는 조국과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로정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이끌어오신 나날은 걸음걸음 혁명의 생눈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전인미답의 간고한 투쟁의 련속과정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주저앉았을 준엄한 시련의 고비들을 수없이 겪으시였지만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무적필승의 군사강국, 사회주의본보기로 전변시키시고 당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이끌어오시는 장구한 투쟁행정에서 우리 인민을 존엄높은 자주적인민으로, 혁명의 위력한 주체로 키우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것을 당사업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언제나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조직적으로 결속시켰으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그 선도적역할을 강화하여 군민대단결을 빛나게 실현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독창적인 청년중시정치로 새 세대 청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키워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신것은 우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이룩하신 특출한 업적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혁명의 존엄한 시련을 헤쳐오는 나날에 전체 인민이 조선로동당의 둘도 없는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로, 혁명의 강력한 주체로 튼튼히 준비됨으로써 우리 조국은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으로 만방에 빛을 뿌리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통같이 다지시여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토대를 마련하시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력사와 그 길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경험은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승리를 담보하는 고귀한 재보로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의 당건설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반으로 높이 모시고 전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밀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일편단심 높이 받들어나가는 길에 모든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투철한 신념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인민정권을 강화하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밀데 대한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과 자강력제일주의를 우리 혁명의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돌파구를 기어이 열어제끼고 질풍노도와 같이 진격해나가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힘있게 떨쳐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현대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과 기술, 지식이 생산을 주도하는 경영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과 기술관리공정을 개발창조형으로 전변시켜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함흥, 단천지구의 공장, 기업소, 광산들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자강력제일주의를 틀어쥐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전력과 석탄, 주체철, 주체비료 등의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공업공장들과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농업부문에서 농작물비배관리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뜻깊은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무조건 점령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농기계공장들에서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능률높은 농기계들과 부속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협동밭마다에 우리가 만든 농기계들의 동음이 높이 울리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수산부문에서 고기배와 어구들을 현대화하며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려 인민들의 식탁우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차넘치게 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만리마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세포지구 축산기지, 혜산—삼지연넓은철길, 룡전도간석지, 장자산소년단야영소건설 등 중요대상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지니고 산림복구전투에 적극 떨쳐나 나무심기와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하여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켜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 거리와 마을, 일터를 더욱 훌륭히 꾸려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들은 10년을 1년으로, 100년을 10년으로 주름잡으며 아침과 저녁으로 강산이 변하는 만리마시대를 청년판으로 만들어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련이어 창조함으로써 다가오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펏펏하게, 자랑스럽게 맞이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반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오늘 우리앞에는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해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수령으로 모시고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여야 조선로동당이 앞으로도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나갈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당건설의 총적과업이며 바로 여기에 백두산대국의 강성번영도, 주체혁명의 종국적승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전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당건설과 당활동, 국가건설과 무력건설, 경제문화건설을 철두철미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장군님식대로 진행하며 모든 사업을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는데 지향시키고 복종시켜야 하겠습니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일편단심 높이 받들어나가는 길에 모든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투철한 신념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여 사상과 신념의 결정체로 다지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며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고 당의 결정과 지시를 결사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당사상사업에서 유일관리체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며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뼈속깊이 체득하여 오직 당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곧바로 가는 참된 혁명가로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

당사업전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본성적요구입니다.

모든 당조직들은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들의 운명을 지켜주며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당앞에 나선 기본투쟁과업은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성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인민정권을 강화하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과 자강력제일주의를 우리 혁명의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돌파구를 기어이 열어제끼고 질풍노도와 같이 진격해나가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힘차게 떨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선군혁명로선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입니다.

인민군대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기치높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군대, 당의 군대로, 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국방공업부문에서 무장장비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세워 나라의 방위력을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 땅우에 기어이 통일강국을 일떠세울것이며 사회주의기치,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한생이 어려있는 주체의 붉은 당기를 휘날리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다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불패의 당,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정일대원수님 만세!

우리 인민의 보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경축 보고대회 및 보고회

각 도, 시, 군들에서 진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경축 보고대회 및 보고회가 각 도, 시, 군들에서 진행되였다.

보고대회 및 보고회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다.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일군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보고대회 및 보고회들에 참가하였다.

해당 단위의 책임일군들이 경축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들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6월 19일을 당창건기념일과 같이 전통적인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고있는것은 장군님께서 당건설과 당활동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칭송하고 빛내여가려는 드팀없는 신념과 철석같은 의지의 발현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을 이끄신 장구한 력사적기간에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고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여놓으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충실한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 전도양양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을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인민들과 뜻과 정으로 혼연일체를 이룬 당,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주체의 혁명적당으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도록 하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통같이 다지시여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토대를 마련하시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력사와 그 길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경험은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승리를 담보하는 고귀한 재보로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의 당건설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반으로 높이 모시고 전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밀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일편단심 높이 받들어나가는 길에 모든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투철한 신념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인민정권을 강화하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밀데 대한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과 자강력제일주의를 우리 혁명의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돌파구를 기어이 열어제끼고 질풍노도와 같이 진격해나가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힘있게 떨쳐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현대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과 기술, 지식이 생산을 주도하는 경영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과 기술관리공정을 개발창조형으로 전변시켜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함흥, 단천지구의 공장, 기업소, 광산들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자강력제일주의를 틀어쥐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전력과 석탄, 주체철, 주체비료 등의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공업공장들과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농업부문에서 농작물비배관리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뜻깊은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무조건 점령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농기계공장들에서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능률높은 농기계들과 부속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협동밭마다에 우리가 만든 농기계들의 동음이 높이 울리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수산부문에서 고기배와 어구들을 현대화하며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려 인민들의 식탁우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차넘치게 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만리마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세포지구 축산기지, 혜산—삼지연넓은철길, 룡전도간석지, 장자산소년단야영소건설 등 중요대상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지니고 산림복구전투에 적극 떨쳐나 나무심기와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하여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켜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 거리와 마을, 일터를 더욱 훌륭히 꾸려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들은 10년을 1년으로, 100년을 10년으로 주름잡으며 아침과 저녁으로 강산이 변하는 만리마시대를 청년판으로 만들어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련이어 창조함으로써 다가오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펏펏하게, 자랑스럽게 맞이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반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업적 세대와 세기를 이어 영원히 빛난다

붉은 당기에 새겨진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

우리 혁명이 걸어온 자랑찬 행로마다에 승리와 영광의 기치로 힘차게 나붓겨온 조선로동당의 붉은 당기발.

총정의 200일전투를 과감히 밀려나가는 장엄한 진군길에서 붉은 당기발을 바라보는 천만군민의 감회는 참으로 류다르다.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날 경사의 날인 뜻깊은 6월 19일이 밝아온 이 아침 붉은 당기발은 천만의 심장들에 많은것을 새기여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그때로부터 어느덧 세월은 52돐기의 년륜을 새겼다.

그동안 세월은 많은것을 변하게 하였다.

반세기이상의 장구한 력사의 로정에서 인류는 사회주의를 리념으로 하던 당들이 자기의 붉은기를 내리우고 조락과 쇠퇴, 변질의 길을 걷는 가슴아픈 사실들을 목격하였다.

혁명을 그르치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가슴아픈 참상들을 보며 누구나 뼈저리게 절감한것은 무엇이였던가.

혁명의 붉은기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라는 력사의 진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뜨겁게 돌이켜보는 이 시각 천만군민은 우리의 붉은 당기발에 대하여 긍지에 넘쳐 말한다.

마치와 낫과 붓이 찬연한 조선로동당의 붉은 당기발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였기에 그 붉은 색조에 변색과 탈색이 없이 세기의 창공높이 더 세차게 휘날리게 되였다는것을 우리는 엄숙히 말하게 된다.

그렇다. 일찌기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그때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붉은 당기발을 승리와 영광의 기치로 휘날려가실 철석같은 맹세를 다지시였다.

지금도 력사의 그 기슭에로 끝없이 마음달리느라면 우리 장군님께서 심장으로 다지시던 맹세의 선언이 들려오는듯싶다.

잊지 못할 그날 당중앙위원회청사에 휘날리는 붉은 당기발을 오래도록 바라보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당중앙위원회청사 창공높이 휘날리는 당기발은 불바다를 헤치며 간고한 시련의 언덕을 넘어온 승리와 영광의 기발이며 혁명의 기발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 당기발에 어린 수령님의 력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시였다.

그때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 과연 무엇이 차넘치였던가.

혁명의 한길에서 우리 수령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붉은기를 변함없이 휘날리시며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당과 혁명을 이끌어나가실 드팀없는 의지를 억세게 가다듬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욱 세차게 피덕이는 붉은 당기를 바라보시며 결연히 선언하시였다.

이제는 우리가 저 붉은 기발을 높이 휘날려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혁명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수령님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

시대와 력사앞에 다지시는 절세위인의 엄숙한 계승의 맹세였다.

오늘 우리의 붉은 당기발은 력사의 그날과 더불어 우리 당건설과 혁명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고 위대한 계승의 위업이 빛나게 실현되였음을 전하여주고있다.

붉은 당기발!

마음속으로 불러만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고 혁명해왔는가를 새기여준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기발의 력사는 수령님께서 라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시고 혁명의 붉은 기발을 드신 때로부터 시작되였다고.

당의 운명,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생사기로에 놓인 준엄한 그 시각 위대한 장군님의 신념은 추호도 흔들림없으시였다.

우리 혁명이 아무리 복잡하고 간고하다 해도 우리는 변함없이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주체의 한길로만 줏줏이 걸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철의 신념과 의지를 안으시고 조국수호의 길, 인민의 행복을 위한 전인미답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쳐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끊임없는 헌신으로 이어진 잊을수 없는 그 나날에 우리의 붉은 당기발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품어안고 더욱 거세차게 나붓기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시련의 고비를 이겨내고 이 땅우에 불패의 군사강국,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굳건히 다질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더욱 높이 추켜드신 붉은 당기가 천만의 심장마다에 신념을 새기여주는 억센 기둥, 희망을 안겨주는 표대로 휘날리였기때문이였다.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어버이수령님께서 넘겨주신 주체의 붉은기를 변함없이 휘날려오신 우리 장군님, 붉은기의 위대한 기수가 되시였던 절세위인의 숭엄한 영상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못 잊는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백승을 떨쳐온 혁명적당, 조선로동당의 기발아래에서 혁명하여온것은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최대의 영광이고 행복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위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게서여 우리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며 붉은 당기발에 새기신 숭고한 뜻은 사회주의 이 땅우에 꽃펴나고있다.

당기발은 당을 상징한다.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날 경사의 날인 6월 19일을 맞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감회도 새로이 붉은 당기발을 우러러본다.

그러느라면 마음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한없는 영광과 환희가 끓어번지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장에로 달린다.

지금도 4.25문화회관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발걸음을 쉽게 옮기지 못한다.

뜻깊은 5월에 열린 당대회에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엄한 영상이 안겨와서이리라.

우리 당의 성스러운 력사를 긍지높이 총화하시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서는 붉은 당기가 나붓겼으리라.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당대회참가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천만군민은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존엄높은 당, 대를 이어 령도자와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당, 조직력과 단결력이 강한 불패의 당,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어머니당은 오직 우리 당밖에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음을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주체의 당기발과 더불어 오늘도 우리 당과 조국의 앞날에 축복을 보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이 어린 성스러운 붉은 당기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억세게 추켜드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이끌고계신다.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총정의 200일전투 진군길우에 조선로동당의 붉은기가 세차게 휘날린다.

온 나라 천만군민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새로운 투쟁에로 힘차게 떠밀어주는 우리 당의 붉은 기폭의 펄럭임따라 조선혁명의 승리적전진이 이루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존엄높은 우리의 붉은 당기를 둘으로 삼아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영웅적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펼쳐질것이다.

본사기자 림 정 호

어버이수령님의 위업 받드시는 길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우리 당명도사는 철두철미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의 력사이다.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전사!

이것은 당중앙청사의 붉은 당기발을 바라보시며 력사에 길이 빛날 맹세를 다지시던 그날로부터 우리 당을 령도하여오시는 전기간 위대한 장군님께서 심장속깊이 간직하여오신 신념이고 지론이였다.

5분과 왕복 1 600리

수십년전의 어느해 가을이였다.

그날도 어느날과 다름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정이 퍽 지나 금강산으로 떠나시였다.

이른새벽 금강산에 도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연바위에 새겨진 글발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과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뜨거운 감사의 정과 불타는 충정의 마음을 반영한 노래의 가사가 새겨지고 그 마감에 년월일이 밝혀져있었다.

날자를 새겼다고, 됐다고, 이제는 됐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행한 일군에게 이제는 평양으로 돌라가자고 하시였다.

일군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니 우리 장군님께서는 이 년월일을 새긴것을 보시기 위해 한밤중에 800리길을 달려오시였던것이다.

세찬 격정으로 가슴들먹이던 일군은 그이께 하루쯤 휴식하고 떠나실것을 말씀올리였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시며 그렇게 쉴바에야 무엇때문에 밤길을 달려왔겠는가고 하시며 길을 재촉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위앞에 서게신 시간은 5분이였다.

5분과 왕복 1 600리,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함을 천세만세 영원히 빛내이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력사에 새겨지는 순간이였으며 후손만대로 전해져야 할 충정의 로정이였다.

출판되지 못한 노래집

어버이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받들어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받드는 길에서 자신의 모든것을 다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일에서 자그마한것도 허용하지 않으시였다.

1970년대 중엽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흠모하여 지은 노래들이 널리 불리워지고있었다.

여기에는 만나면 순간에 온넋이 끌려 윤명도 미래도 다 맡기는 우리 장군님에 대한 온 나라 인민들의 끝없는 매혹과 흠모의 감정이 비껴있었다.

일군들은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담아 가요들을 한데 묶어 노래집을 출판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부터 이 사업을 추진시키게 되였다.

노래집이 나가게 되면 인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하는것이 그때 일군들의 생각이였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시며 이런 노래집이나 만들어 모두가 노래나 부르게 하면 당의 권위가 세워진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나는 그 누가 내 세워주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무한한 헌신성과 창발성을 다 바쳐가는 길에서 인민들의 신뢰를 얻을것이며 당의 권위를 세워나갈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일군들과 인민들의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질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노래집이 세상에 나온것은 그때로부터 세월이 흐른 뒤였다.

불허하신 문제

1990년대말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60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동상을 모실것을 간절히 바라는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편지가 당중앙위원회에 수많이 왔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게 되였으니 이제는 여한이 없게 되였다고 하면서 적극 지지해나섰고 세계 혁명적인민들도 자기들의 심정을 담은 제의서들을 장군님께 삼가 올리였다.

인민들이 바라는것이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시려는 의지를 지니신 우리 장군님이시였건만 자신의 동상을 세우는것을 극력 반대하시였다.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나에게는 지금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 생각밖에 없는데 무엇때문에 내가 바라지도 않는 동상을 세우려 하는지 모르겠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수령님의 전사로서 수령님의 필생의 뜻을 이어 우리 인민들을 잘살게 하고 조국을 통일하며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야 할 력사적사명을 지니고있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의 의사를 단호히 일축하시였다.

위인의 력사는 동상이나 기념비로 빛나는것이 아니라 사상과 업적으로 빛난다!

이것이 우리 위대한 장군님의 의지였다.

우리 당과 혁명앞에 그토록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어버이장군님의 동상을 모실것을 바라는 인민들의 간절한 소원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에 의하여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였다.

본사기자 백 영 미

끝없이 풍성번영할것이다. 본사기자 리 충성 찍음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사회주의 대 조국은

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된 모습

예로부터 가장 뜨거운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그 사랑속에 어떤 사심이나 타산이 아니라 자식의 행복만을 바라는 어머니의 뜨거운 진정과 헌신이 깃들어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어머니당입니다.》

주체63(1974)년 텔레비존중계탑건설의 나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뜨겁게 되새겨진다.

그때 여름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 당의 의도에 따라 자강도의 깊은 산골에서도 텔레비존중계탑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었다.

텔레비존중계탑건설이 마감단계에 이르렀을 때 건설현장에서는 깊은 걱짜기에 사는 한두세대를 위해 텔레비존중계탑을 건설할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리유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것이였다.

한 책임일군으로부터 그에 대해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에게 동무의 생각은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현장에서 올라온 의견을 놓고 불보듯 명백하다고 생각했던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말씀드리였다.

한동안 그를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엄하신 어조로 동무는 우리와 함께 오래 일한 동무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우리가 언제 인민을 위한 일에 수지타산을 앞세운적이 있는가고 나무라시였다.

순간 일군의 뇌리에는 인민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이 낳은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일군의 심정을 헤아려보신듯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량강도와 자강도를 비롯한 산간지대인민들에게 텔레비존중계시설을 잘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한대의 텔레비존을 위해서 기계공 열명이 근무하는 텔레비존중계탑을 세워도 좋으니 산간지대의 마지막 한집까지 다 밝고 아름다운 화면을 볼수 있게 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새겨안는 일군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 뜨겁게 달아올랐다.

인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줄수 있는 일이라면 타산을 앞세우지 않는것, 설사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않는것, 이것이 인민을 위한 우리 장군님의 계산법이였다.

정녕 자식들을 위한 사랑과 헌신으로 한생을 바치는 어머니처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장군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당은 인민의 마음속에 어머니의 모습으로 새겨질수 있었다.

본사기자

행복의 보금자리들에 어려있는 사랑

위대한 어머니당!

성스러운 그 부름 새겨볼 때면 우리 당을 인민들에게 보다 유쾌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안겨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습니다.》

창광거리에 현대적인 고층살림집들이 일떠섰을 때였다.

새집들이를 앞둔 어느날 현장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거리를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살림집에도 들리시였다.

채광이 좋은 넓다란 방들과 부엌, 세면장과 위생실이며 창고 등 정말 흠잡을데가 없을상싶었다.

그런데 살림집내부의 구석구석을 세심히 살펴보신 후 베란다에까지 나가시여 하나의 부족점이라도 있을세라 깊이 마음쓰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갑자기 한 일군을 찾으시더니 베란다의 한복모서리를 가리키시는것이였다.

그 일군이 무슨 흠이 있는가 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미흡한 점을 찾을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물빠지는 구멍이야 밑바닥에 바싹 붙여서 내야지 이렇게 올려다 내면 어떻게 하는가고 하시면서 그가 찾지 못한 부족점을 알려주시였다.

아닐세라 물빠지는 구멍이 바닥보다 알밤톳말톳하게 약간 높이 나있는것이였다.

순간 일군은 당황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일군에게 이 집은 인민들의 살림집수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당에서 직접 맡아서 지은 집이 아닌가, 그러므로 눈에 잘 보이는데건 안보이는데건, 큰것이건 작은것이건 할것없이 모든것을 쓰는 사람들의 립장에서 세심하고 깐지게 자그마한 흠도 없이 해야 하며 바로 그렇게 하는것이 인민의 충복다운 일본새이고 마음씨라고 다정히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면서 혹 어떤 사람들은 욕에도 리가 있다고 이처럼 요란한 살림집을 지어준것만도 대단한데 그런 사소한 흠집이야 뭐라겠는가고 할수 있다고, 그러나 욕에 리는 허용할수 있어도 인민을 위한 우리 일군들의 마음에 리는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창광거리 살림집들은 사소한 부족점도 찾아볼수 없는 생활의 보금자리, 행복의 보금자리로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다.

인민의 행복과 더불어 강화발전되여온 조선로동당!

진정 인민의 행복에서 제일 큰 기쁨을 찾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를 모시였기에 우리 당은 인민의 만복을 꽃피워주는 어머니당으로 빛날수 있은것이다.

혁명의 목적도 본질도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데 두고 투쟁하는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력사는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끝없이 이어지고있다.

이 땅우에 일떠선 현대적인 고층, 초고층살림집들을 보라.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한다. 결코 그 웅장함과 화려함때문만이 아니다.

살림방으로부터 부엌과 세면장, 벽지의 색갈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나 인민들에게 최상의 것을 안겨주려는 우리 당의 뜨거운 인민사랑의 세계가 어려있어 모두가 격정의 눈물을 흘리는것이다.

인민의 마음속에 한가닥 그늘이 있을세라, 생활의 갈피마다에 민구석이 있을세라 따뜻이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의 품은 만복이 꽃펴나는 행복의 보금자리이기에 인민은 심장으로 부르고 부른다.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고.

강 원 남

조선로동당기발따라 영원히 백승떨치리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를 들으며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장에서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가 대회주악으로 장중하게 울려퍼진 격동의 그 순간이 지금도 눈앞에 선히 떠오르는 이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을 류다른 기쁨속에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생애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인미답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의 가장 고결한 한생이였습니다.》

해마다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로 경축해온 우리 군대와 인민이지만 당대회이후에 처음으로 맞는 이해의 6월 19일은 한편의 노래와 더불어 크나큰 격정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력사의 그날에도 우리의 붉은 당기는 당중앙청사우에서 그 찬연함과 눈부신 자태를 온 누리에 떨치며 백두산의 위대한 아들이신 우리 장군님을 제일 선참으로 뜨겁게 맞이하지 않았던가.

이날 집무실에서 한밤을 꼬바기 지새우시고 다음날 이른새벽 당중앙뜨락에 나서신 어버이장군님께서 크나큰 격정과 환희속에 바라보신 붉은 당기의 힘찬 펄럭임소리가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의 장중한 선률을 타고 금시라도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수령님의 뜻대로 우리 당을 억세게 떠메고나가리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기발에 새기신 엄숙한 계승의 의지는 조선로동당의 력사에 40년의 년륜이 아로새겨지는 뜻깊은 해인 주체74(1985)년에 천만군민의 심장의 화답소리로 조국강산에 메아리쳤으니 이렇게 태여난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는 우리 당의 위업의 계승성과 불변성을 새 세대들의 이름으로 다시금 세계앞에 떳떳이 선언한 사상과 신념의 제주봉이였고 주체혁명의 참다운 계승자들이 당기발앞에서 다지는 일편단심의 맹세였다.

조선로동당이 무엇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로, 향도자로 되고있으며 조선로동당기발의 영원한 생명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편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 인민은 누구나 심장으로 뜨겁게 절감하고있다.

우리 당기발의 눈부신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라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시고 혁명의 붉은 기발을 드신 때로부터 비로소 시작되였다. 항일의 불바다를 헤치는 그 준엄한 나날에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기발로, 전체 조선민족을 조국해방을 위한 전민항전에로 불러일으키는 승리와 영광의 기치로 되여온 영광스러운 혁명의 기발이다.

당기발의 생명력은 당의 위업의 계승성에 의하여 과우된다.

당이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속에서도 끄떡없이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대를 이어 변함없이 고수해나갈 때 당기발은 세대와 년대를 이어 승리와 영광의 기치로 높이 휘날리게 된다.

당이 자기의 본성을 잃으면 그러한 당은 이미 혁명의 대가 끊긴 당, 미래가 없는 당으로 되고 점차 붉은기의 퇴색을 가져오며 나중에는 당도 당기도 다 잃게 된다. 자기의 창건을 장엄하게 선포하며 인류의 머리우에 휘날렸던 당기들이 이렇게 하나둘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어버린 실례가 얼마나 많은가.

당기발의 생명력, 그것은 천지풍파가 닥쳐온다고 해도 당의 위업의 정당성, 그 승리의 합법칙성을 굳게 믿고 영원히 당기발과 자기 운명을 함께 하려는 혁명의 계승자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에 의하여 굳건히 담보된다.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기발》, 《목숨은 버려도 우리 영원히 주체의 당기를 놓지 않으리》,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혁명적본성과 영원히 변함없을 성스러운 사명이 있으며 주체혁명위업계승자들의 신념과 의지를 온 세상에 힘있게 선언하는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가 가지는 시대적의의와 영원불멸할 생명력이 있다.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는 조선로동당기발을 혁명의 전두에 높이 휘날려온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위대한 력사를 안고 년대와 세기를 이어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는 첫해였던 주체101(2012)년 8월 25일 《로동신문》 1면에는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의 노래가 용근한면에 걸쳐 게재되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당창건기념일을 의의있게 경축한 모란봉악단 공연에서 또다시 이 노래가 뜻깊게 울려퍼질 때 사람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세대에게 물려주신 가장 고귀한 유산인 붉은 당기에 담겨진 고결한 뜻과 피눈물의 12월에 장군님께서 안고계신 당기발의 무게를 심장으로 새겨안았다.

설사 몸이 찢기고 쓰러진다 해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나 조선로동당기를 절대로 놓지 않고 우리 당의 사상과 위업에 끝까지 충직하려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의 변함없는 일편단심이며 조선로동당원들의 억척불변의 의지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는 단순히 조선로동당을 칭송하는 한편의 노래가 아니다.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가는 길에서 조선로동당기와 영원히 운명을 함께 하려는 천만군민의 불타는 충정의 언약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심장속에서는 당기발의 펄럭임소리인양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가 울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기어이 사회주의강국의 명마루에 주체의 당기를 높이높이 휘날리는 그날 우리의 천만군민은 다름아닌 이 노래를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생소원을 풀어드린 크나큰 기쁨을 안고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남먼저 달려갈것이다.

리 수 정

우리 장군님과 불후의 고전적명작들

력사에는 사회혁명과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공적을 세운 위인들이 적지 않게 있다. 허나 민족의 지성과 문명의 높이를 보여주는 문학예술부문에서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은 위인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오직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며 문학예술의 거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리론이 구현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몸소 창작하시고 수십년세월 우리 문학예술을 주체의 한길로 향도하시여 눈부신 비약과 기적을 안아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의 사상과 심장을 움직이는 예술은 세계를 변혁하는 혁명투쟁의 위력한 무기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0대의 어린시절은 물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나날에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정력적으로 창작하시였다. 일찌기 음악은 자신의 첫사랑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앞에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전쟁시기에도,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성스러운 사명감을 깊이 새기시던 뜻깊은 날에도 그리고 거창한 문학예술혁명의 나날에도 창작활동을 진행하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그 심원한 문학세계, 예술세계로 하여 오늘도 주체예술의 정수를 이루고있으며 명작창작의 고전적본보기로 되고있다.

혁명발전의 합법칙성과 투쟁과 생활의 심오한 진리를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높이에서 훌륭히 반영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오늘도 그 위력을 떨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가운데는 창작유래와 사상예술적내용의 심오성에 있어서 특출한 의의를 가지는 명곡들이 있다. 그 작품이 바로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 《조선아 너를 빛내리》,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1(1952)년에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을 창작하시였다. 지금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명곡 《조국의 품》을 조국에 대한 노래의 대표작이라고 말하고있다.

명곡은 소박하면서도 생동한 시적표현으로 내 조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림처럼 펼쳐보이는것으로 하여 누구에게라없이 친근하게 따뜻이 스며든다.

모란봉에 붉게 타는 노을, 대동강에 곱게 비낀 무지개, 진달래꽃 방긋 웃는 새봄, 종달새가 지저귀는 하늘, 바다우에 둥실 솟는 아침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

자연의 정화와도 같은 시적형상들은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정갈한 샘처럼 끝없이 솟아오르게 한다.

우리 민족음악사에는 조국에 대한 사랑을 향토적인 정서와 색채로 구가한 작품들이 많이 전해지고있다. 그러나 《조국의 품》처럼 조국에 대한 참신하면서도 폭넓은 형상을 창조하고 조국에 대한 심원한 철학을 밝힌 명곡은 없었다.

오래전부터 우리 인민과 창작가들은 산좋고 물맑은 내 나라의 산천경개를 명구절에 옮기기도 하고 대지를 가꾸어가는 로동생활을 건드러진 민요가락에 담기도 하였다. 조국을 일제에게 통채로 강탈당하였을 때에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피의 절규를 터뜨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장군님께서 새기신 조국의 모습은 종전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모습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에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길을 따라걸으시면서 받아안으신 사상감정을 글로 적으시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쓰신 글줄들에는 해방된 조국에서 꿈같은 행복을 누려가는 인민의 모습과 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흘러넘치였다. 이 나날에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산천도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인민의 얼굴도 밝아진다는 생활의 진리를 깨치게 되시였다.

그후 조국의 운명이 판가리되는 전화의 불길속에서 《김일성장군만세!》를 웨치며 한치한치의 땅을 목숨바쳐 지켜싸우는 인민군용사들의 위훈을 보고 들으시면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걸머지시고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끌어가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모습을 뵈오면서 우리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품은 다름아닌 수령의 품이라는 신념의 기둥을 간직하시였다.

수년세월 조국에 대한 정서적체험을 축적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화시기도 아닌 전쟁시기에 내 나라의 절경을 노래 《조국의 품》에 반영하시였으며 《해빛처럼 밝고밝은 조국의 품은 아버지장군님 품이랍니다》라는 심오한 사상을 밝히시였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은 곧 수령이며 조국의 품은 수령의 품이라는 사상은 동서고금의 력사가 알지 못한 위대한 사상이였다.

명곡의 사상예술적깊이는 비단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노래를 창작하게 되신 동기는 전쟁시기 동무들속에서 놈들의 폭격으로 모란봉의 소나무숲이 다 불탔을것이라는 말이 나온 때부터였다. 그때 그이께서는 동무들에게 모란봉의 소나무는 꿋꿋이 살아있다고 하시면서 미국놈들이 아무리 줄폭탄을 퍼부어도 아버지장군님께서 찾아주시고 용감한 인민군용사들이 지키고있는 아름다운 조국은 불태울수 없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그대로 참다운 조국의 의미에 대한 독창적인 정의였다. 수령의 품을 조국의 품이라고 생각하며 그 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기꺼이 바치려는 군대와 인민의 힘은 원자탄보다도 더 강하다는 사상과 그 숭고한 정신세계에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조국의 모습이 비껴있다는 미학적전해는 새로운 발전이였다.

명곡이 밝힌 심오한 철학과 밝고 랑만적인 시적형상을 낳게 한 미학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그후 년대와 년대를 이어 비약하고 번영하는 내 나라의 현실과 시대의 명작들이 그대로 실증해주었다. 하여 노래는 인민의 참된 조국이란 어떤것인가를 밝힌 기념비적걸작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되였으며 조국애를 주제로 한 작품창작이 왕성하게 진행되도록 한 원동력으로 되였다.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조국애와 더불어 명곡 《조국의 품》은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 그리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김정일애국주의의 위대한 세계를 깊이 새겨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가운데는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혁명관과 인생관이 응축된 명곡 《조선아 너를 빛내리》도 있다.

명작은 주체49(1960)년 9월 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시여 지으신 작품이다.

력사의 그날 룡남산마루에 오르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수려한 산발과 조화를 이루며 서있는 김일성종합대학 청사를 바라보시며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리》를 읊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시를 읊으신 후 자신께서는 즉흥적인 감정에서 시를 읊은것이 아니라고, 늘 가슴깊이 간직하여오던 심정을 뜻깊은 오늘 터놓았다고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사에는 자기를 제2바이올린주로 부르며 수령을 내세운 한 명인의 겸허성을 보여주는 일화가 기록되여있다. 하지만 한편의 노래로 혁명전사가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어떻게 새기며 받들어야 하는가를 밝힌 례는 없었다.

《조선아 너를 빛내리》는 세개의 절로 구성되여있지만 혁명위업의 참다운 계승에 관한 문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고나선 혁명가의 각오와 명세에 대한 심오한 사상과 진리를 깊이있게, 명백하게 밝힌것으로 하여 불멸의 대작으로 된다.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은 뜻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 명곡의 구절에 얼마나 깊은 뜻이 어려있는지를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45(1956)년 12월에 쓰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기에서도 가슴뜨겁게 받아안게 된다.

오늘 원수님께서 발표하신 로작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를 다시 학습했다.

몇차례 읽으면서 발취하였으나 오늘 또다시 읽으니 새로운 느낌을 주는 철학적진리와 위대성으로 하여 생각은 깊어만진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탐구하고 사색하고 학습해야 할것인가를 명백하게 밝혀주는 참된 생활의 교과서이다. …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불패성을 신조화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기에 명곡에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리》라는 혁명적신념과 의지의 선언을 담으시였던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수령의 혁명사상을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하며 수령의 혁명위업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를 예술적으로 완벽하게 밝힌것으로 하여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에 명백한 예술적해답을 주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우리 장군님의 거룩한 한생으로 하여 그 사상예술적가치와 전인력이 비상히 높아졌다.

하늘의 태양을 우러르듯이 인류의 태양 김일성동지를 모신 조선을 세계의 상상봉에 우뚝 올려세우실 혁명적신념과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내 조국은 그토록 짧은 기간에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승리와 기적을 떨쳐올수 있었다.

명곡과 함께 반세기가 넘게 흘러온 내 조국의 력사는 천만군민에게 혁명위업계승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 빛나는 해결이야말로 조국과 민족의 가장 큰 복이라는것을 절감하게 한 나날이였다. 태양민족이 받아안은 복을 오늘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변함없이 누려가는 천만군민에게 있어서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리》는 위대한 태양의 력사를 빛내이고 선군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확신하게 하는 승리와 영광의 노래로 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며 시대의 본질을 밝힌 불후의 고전적명작들가운데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도 있다.

명곡은 주체60(1971)년에 창조된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의 주제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학예술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리시던 격동적인 시기에 이 명작을 지으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은 세기를 이어 오늘도 전인민적총가로 조국강산을 진감하고있다.

혁명가극에서 이 명곡은 직후에서 극악한 상황에 처한 인민군녀병사가 부르는것으로 하여 강한 정서적충격을 주고있다. 가극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인공 강연옥과 부상병들이 행군해가는 로상에는 적들이 욕설거리였으며 대오에는 먹을것도 의약품도 떨어지고 중상자까지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인민군병사들의 가슴속에서 어떤 노래가 울려나올수 있겠는가를 두고 창작가들은 론의도 많이 하고 초고도 적지 않게 써보았지만 만사람을 격동시킬수 있는 가사를 내놓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태를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깊은 밤 심원한 사색속에 한자한자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쓰시였다.

《북두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장군님은 어데 계실가》의 구절과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엄혹한 전쟁시기 우리 수령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최고사령부를 찾아오던 군인들과 인민들의 잊을수 없는 모습을 그려보시였으며 그들의 마음을 담아 가사를 이어나가시였다. 절세의 위인의 로고와 빛나는 예지에 의하여 혁명가극의 주제가는 마침내 완성되였다.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의 주제가에는 종래의 전쟁주제작품에서 받아안을수 없었던 강렬한 사상감정이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다. 그것은 사무치는 그리움이였고 그 무엇으로도 가를수 없는 혈연의 정이였다.

명곡은 1950년대의 시대정신만을 반영하지 않았다. 혁명가극이 창조된 이듬해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자신께서는 해방후 어머님께서 옛 전우들과 자주 사업토의를 하는것을 듣군 하였는데 그들이 만나서 하는 첫 인사말도 수령님의 안녕이였고 토의하는 내용도 수령님의 부담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는가 하는것이였으며 헤여질 때에 하는 인사도 수령님을 잘 모셔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였다고 뜻깊게 추억하시였다.

일찌기 우리 수령님과 혁명전사들 사이에는 동지적관계를 초월하여 혈연의 정이 맺어진다는것을 알게 되시고 전쟁시기 군인들과 인민들의 모습을 통하여 더욱 확신하게 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에서 《꿈결에도 그리운 아버지장군님 자나깨나 뵙고싶은 우리의 장군님》이라는 명구절로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을 분출시키시였다.

이런 열화같은 감정속에 수령과 맺은 혈연의 정을 간직하면 절해고도에 놓인대도 외롭지 않으며 수령의 사랑과 믿음속에 사는 전사는 기어이 승리의 보고만을 올려야 한다는 우리 장군님의 혁명지론이 명곡에 굽이쳐 작품은 시대의 진군가로 더욱 승화될수 있었다.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치 말아야 할 혁명지론을 간직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면 한몸을 초불처럼 불태우시며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창조하시였다. 세계를 놀래운 20세기 문예부흥도, 사회주의 일대 전성기도 이렇게 펼쳐지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혁명가의 대부대를 키우는 위력을 발휘하게 되였다. 천만군민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이 노래와 함께 사회주의수호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준엄한 길을 열어나갔으며 새 세대들은 10여년세월 백두대지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청년명장으로 성장하였다. 이 노래를 가슴에 쪼아박은 미더운 체육인들이 승리를 쟁취하고 람홍색공화국기를 높이 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백동치기에 명곡은 가극무대를 벗어나 세기를 이어 천만군민이 부르는 수령흠모의 노래, 신념의 노래로 울려퍼지는 놀라운 신화를 창조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조국의 품은 수령의 품이라는 심오한 철학과 조국과 인민의 운명은 곧 수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드는데 있다는 혁명승리의 합법칙성을 밝히고 백폭탄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수령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일심단결의 불패성을 과시한것으로 하여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더 높이 올려야 할 진군가로 되고있다. 여기에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가지는 지대한 사회력사적의의가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울려퍼진 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전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사상예술적감화력은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민족만대의 재보로 길이 전해갈것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진군걸음을 용기백배 힘차게 다그쳐나갈것이다.

차 수

…
장군님 계시는 최고사령부
기어이 기어이 찾아가리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동포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8일 정현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태양민족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하는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시였으며 주체적체외교로운동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에 즈음하여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18일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인 정일심동포가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총련일군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김차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일군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만경대일가분들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이 전시되여있는 만경대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유서깊은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조국의 해방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 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고향집을 찾을 때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강렬해진다, 그이께서는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다고 말하였다.

대표단은 또한 정천혁명사적지, 평양육아원, 애육원, 과학기술전당 등을 참관하였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들 도착

정현, 최윤이를 각각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들이 18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국제태권도련맹창립 50돐 기념행사에 참가하였던 태권도대표단이 떠나갔다

국제태권도련맹창립 50돐 기념행사에 참가하였던 룡와이맹 국제태권도련맹 부총재를 단장으로 하는 태권도대표단이 18일 평양을 떠나갔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김경호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이 전송하였다.

참관기

청년강국이여 길이 전하라, 불멸의 그 업적을

청년운동사적관을 돌아보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을 따두산청년강국의 대경사로 빛내이며 절세위인들의 독창적인 청년운동사상과 고귀한 령도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위인칭송의 대기념비, 사상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일떠선 청년운동사적관으로는 지금 뜻깊은 6월 19일을 맞으며 참관자들의 물결이 끝없이 흐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얼마전 우리도 이곳을 찾았다. 참관자들과 함께 홍서홀에 들어선 우리들의 눈앞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청소년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모습이 안겨왔다. 금시라도 손치어 부르실것만 같은 자애로운 그 영상앞에서 참관자들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오래도록 움직일줄 몰랐다.

혁명령도의 첫 시기부터 청년문제를 혁명의 흥망성쇠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주체적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우리르면 우러를수록 온 나라 청소년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앞날의 주인공,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억세게 키워주시고 휘황찬란한 미래에로 손잡아 이끌어주신 천출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이 가슴가득히 차올라 폭발치는 격정을 누를수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중시사상을 그대로 이어오신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홰불봉을 청년들에게 안겨주시고 청년동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함으로 빛나게 해여주시였으며 청년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혁명의 매 년대기별로 꾸려진 전시실들을 차례로 돌아본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고 그 위력을 높이 떨치도록 이끌어주신 혁명사적자료들이 전시되여있는 홍실로 걸음을 옮기였다.

전시실에 들어서니 우리 청년전위들에게 혁명의 홰불봉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진문헌이 우리의 눈앞에 숭엄하게 안겨왔다.

우리 당이 강하고 군대가 강하고 청년들이 강하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을 내여 전당, 전군, 전민을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도록 하시고 조선로동당창건 50돐경축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홰불행진에 참석하시여 친히 청년전위들에게 혁명의 홰불봉을 넘겨주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 10월의 대축전장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넘겨주신 혁명의 홰불봉에는 새 세대 청년들이 꺼질줄 모르는 혁명의 불길이 되여 당을 떠 알장에서 옹호보위하며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당의 참된 청년전위가 되기를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

력사적인 사적홰불봉을 바라보는 청년들모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혁명의 홰불봉을 억세게 틀어쥐고 당을 따라 변함없이 끝까지 투쟁해갈 불타는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다른 전시면에 모셔진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에 대한 강사 한옥경동무의 해설은 참관자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로청창립 50돐을 맞으며 청년동맹의 명칭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시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청년동맹에서 보고올린 명칭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문건의 갈피마다에 사회주의라는 문구도 써넣어주시고 활달한 필체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라고 합시다.》라는 친필을 새겨주시였습니다.》

일찌기 청년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계승완성해나가기 위한 운동이라는것을 밝히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우리의 청년동맹을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적청년조직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세심한 령도와 크나큰 믿음이 있어 청년동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력사적전환의 계기가 마련될수 있었으며 우리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존엄높은 청년조직의 한 성원으로 청춘을 빛내여가고있음을 사연깊은 친필은 전하여주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85(1996)년 1월 19일 몸소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대표자회에 참석하시여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이 모셔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발을 직접 수여해주시는 사진문헌, 절세위인께서 몸소 보아주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맹원증과 동맹마크도안앞에서 참관자들은 걸음을 떨쳐 멈췄다.

이어 참관자들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나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청년동맹창립 51돐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선포 1돐을 맞으며 보내주신 력사적인 친필서한을 비롯하여 사적물들과 사적자료들, 신문자료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참으로 조선청년운동이 걸어온 성장의 자욱마다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령도와 사랑의 손길이 력력히 어리여있었다.

우리 청년들을 오직 당과 수령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한목숨바쳐 보위하는 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로,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 청년영웅들로 키워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이 땅우에는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풀처럼 일떠서고 청년들속에서 당과 수령, 사회와 집단, 혁명동지들을 위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칠줄 아는 영웅들이 수많이 배출될수 있었음을 참관자들은 여러 전시면을 꽉 채운 전시물들과 자료들을 통하여 더욱 깊이 절감할수 있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청년동맹을 불패의 위력을 떨치는 영웅적인 청년조직으로, 우리 청년들을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당당한 주인공들로 키우신 탁월한 령도자, 자애로운 스승이시다.

주체적청년운동의 강화발전에 영구불멸할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중시사상을 그대로 이어 백두산청년강국의 위용을 온 누리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젊음으로 약동하는 우리 조국의 래일은 더 밝고 창창하리라는 확신을 안고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이곳을 나섰다.

본사기자 강 철 웅

체육경기들이 진행된다

보천보홰불상체육경기대회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진행된다.

일요일(19일) 오전 청춘거리 수영경기판에서는 수산성체육단과 중앙체육학원 녀자선수들의 수구 1급경기가 벌어진다.

한편 이날 광복거리에서는 4.25, 압록강, 평양체육단을 비롯한 여러 체육단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는 마라손경기가 진행되게 된다.

코에체조 1급 남, 녀경기가 20일부터 조선체육대학에서, 레스링 성인급 남, 녀경기가 22일부터 청천강체육단에서, 물에 뛰여들기 1급 남, 녀경기가 23일부터 청춘거리 수영경기판에서 시작된다.

서산축구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축구 1급 남, 녀경기일정은 다음과 같다.

19일 남자 소백수:리명수
홰불:룡악산
20일 남자 평양:려명
기관차:장수봉
녀자 경공업성:월미도
평양:압록강
21일 남자 4.25:홰불
경공업성:룡악산
22일 남자 룡남산:려명
압록강:장수봉
23일 남자 소백수:홰불
선봉:룡악산
24일 남자 기관차:평양

23일에는 녀자 조별련맹전에서 1, 2위를 한 팀들의 대각경기가 벌어진다.

국제민용항공기구 북아시아지역 운영안전 및 유용성에 관한 협조개발계획 제16차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였던 외국손님들이 떠나갔다

국제민용항공기구 북아시아지역 운영안전 및 유용성에 관한 협조개발계획 제16차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였던 웨인 챠핀 국제민용항공기구 북아시아지역 협조개발계획 조정자와 일행이 18일 평양을 떠나갔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리영선 민용항공총국 부총국장이 전송하였다.

이에 앞서 김의민 국제민용항공기구 북아시아지역 운영안전 및 유용성에 관한 협조개발계획 제16차 조정위원회 집행위원장, 미겔 브리덴버그 국제민용항공기구 항행국 과장과 일행, 바출룬 다단크후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민용항공국대표단, 신천하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민용항공국대표단, 쟈비어 비세도 유럽항공안전위원회 베이징주재 대표가 갔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저의 아들 백용수는 영예군인입니다. 우리 당의 손길아래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고있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저에게는 생각되는것이 많습니다.

한때 그는 악화된 병으로 운신을 못하게 된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하였던지 저와 며느리 림광숙을 비롯한 온 가족이 정을 기울였으나 가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손맥을 놓으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날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저의 아들 한사람을 위해 그렇게 많은 의사, 간호원들이 떨쳐나설줄 몰랐습니다.

함흥시인민병원 과장 박승태, 의사 박명수, 한정주, 한성일동무들과 간호장 최희숙, 김향동무들 그리고 간호원들인 리윤미, 김영심, 리혜영동무들, 천의봉사일군인 남영애동무…

그들의 지극한 정성이 꺼져가던 아들의 생명에 활력을 주었던것입니다. 이렇게 되여 저의 아들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대지를 활보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그들뿐이 아닙니다. 어머니조국을 위해 청춘시절을 빛내인 영예군인인데 아까울것이 무엇이겠는가고 하면서 시안의 보안원들과 동의 주민들도 달려와 보약과 생활필수품들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금 절감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혈육의 정을 맺고 사는 우리 인민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것을.

함흥시 사포구역 사포2동
강 봉 아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향도하는 불패의 당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에 즈음하여

경축행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에 즈음하여 인디아, 도이췰란드, 벌가리아에서 토론회,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가 13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새로운 대고조의 불길속에 날로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모습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인디아 김정일로작연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면서 이룩하신 가장 큰 업적중의 하나는 조선로동당을 투철한 사상적전일제로, 통일단결을 확고히 실현한 당으로 건설하신것이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공세로 나라가 최악의 시련과 난관을 겪고있던 시기에도 전반적무상치료제와 무료의무교육제와 같은 인민적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여 인민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서거하시였으나 그이의 당건설령도업적은 승승장구하는 조선로동당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조선로동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선포하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을 명실공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고 격찬하였다.

벌가리아의 전 브라짜시경찰국장은 김정일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조선의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가 진행되는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조선인민은 미국의 가증되는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달성하였으며 이것은 우리 벌가리아인민에게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조선은 우리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귀감이며 희망의 등대이다. 이번 전람회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피해와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확신한다.

김정은각하를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에 즈음하여 에티오피아, 페루, 말레이시아에서 9일과 11일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선로동당창건 70돐성대히 경축》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영화감상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청년협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조선로동당은 절출한 수령들을 모시여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향도적력량으로, 인류자주위업을 주도하는 권위있는 당으로 존엄떨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52년전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조선로동당력사에 특기할 사변이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조선로동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지닌 전투적인 당으로 발전시키시였다고 격찬하였다.

페루 싼 마르꼬스종합대학 교수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를 모시여 조선인민은 조국해방위업을 성취하고 미제를 타승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압살책동속에서도 세계가 우러르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을 일떠세웠다.

김정은령도자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똑같이 인민을 하늘처럼 받드시는 인민의 수령이시다. 조선인민은 그이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들을 모신것은 조선인민의 행운이다.

말레이시아 텔록쓰 리위회사 수출과장 등 발언자들은 영화를 통해 조선에 대하여 더 많은것을 알게 되였다, 조선은 정치군사강국이다, 특히 조선인민의 단결력과 조직력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반드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것이다고 말하였다.

성명 발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인민전보당이 13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력사적인 1964년 6월 19일은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에서 사변적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날이다. 김정일각하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시고 그것을 당건설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시여 조선로동당을 자주적대가 뚜렷한 당으로, 단 한번의 로선상착오도 없이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향도하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으며 혁명적당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령도력, 고매한 인민적풍모를 지니시고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나이제리아인민전보당은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김정은각하를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신문 특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에 즈음하여 수리아, 영국신문이 특집하고 글을 게재하였다.

수리아신문 《티슈린》 7일부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에 즈음하여, 인민조선 전보와 발전의 길로 계속 전진》이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조선이 주체사상을 전보와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서거하신 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할데 대한 구호를 당의 기본구호의 하나로 제시하시고 조선로동당을 그 어떤 도전에도 드놀지 않는 가장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신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전설하시였으며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신데 대하여, 시대적요구에 맞게 선군정치를 구현해나가신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김정일령도자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을 고무적기치로 틀어쥐고 자기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고 신문은 강조하였다.

영국신문 《프로레타리안》 6월호는 《조선로동당이 사회주의길로 계속 나아갈것을 확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옹근 두면에 실었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제7차대회를 통하여 조선이 반제자주위업의 보루로 계속 남아있으며 사회주의길로 드팀없이 나아갈것을 확언하였다. 당 제7차대회에서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으며 앞으로 사회주의조선이 나아갈 설계도가 명시된것은 조선혁명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준 사변으로 된다.

불레찐 발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에 즈음하여 민주꽁고-조선친선 및 련대성협회에서 12일 불레찐을 발행하였다. 불레찐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와 조선로동당》, 《선군정치의 창시자, 사회주의수호자》 등 제목의 글들을 편집하였다. 글들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964년 6월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수십년간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시였다고 지적하였다. 글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하시고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였으며 선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고 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신데 대하여, 세계자주화위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핵으로 하는 6.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되고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이 열린데 대하여서도 평가하였다.

글들은 오늘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관철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고 하면서 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데 대하여서와 대회의 기본정신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조선인민은 김정은동지께서 계시는 한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확신에 넘쳐있다고 글들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새로운 조국통일로선과 당침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격동적인 시기에 평양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석회의가 열리고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호소문은 해내외의 온 겨레가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통일의 앞길을 힘차게 열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련석회의의 호소를 심장에 새기고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자주통일위업실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하고 첨예한 매일수록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합니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것은 조국통일운동의 필수적요구이다.

자주는 민족문제해결의 핵이고 조국통일의 생명선이다.

조국통일위업은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물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다. 따라서 조국통일은 철저히 민족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야 한다.

자주를 떠나서 조국통일운동의 전진과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조국통일운동의 자주적대를 세워나가자고 해도 그렇고 자기 민족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통일위업을 추동해나가자고 해도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은 반드시 민족이 지닌 자력자강의 힘으로 이룩하여야 한다는것이 련석회의 호소문에서 강조된 중요한 내용이다.

조국통일은 그 누구도 대신해줄수 없으며 그 어떤 외세도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다단한 문제라고 하여도 반드시 우리 민족의 지혜와 슬기로 풀어나가야 하는것이 조국통일문제이고 외세의 횡포와 도전이 아무리 악랄하다고 하여도 오직 민족자체의 힘으로만 틀고나가야 하는 길이 자주통일의 길이다.

우리 민족은 자기의 주체적력량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

최상의 경지에 올라선 위대한 강국의 존엄으로 외세의 지배와 간섭책동을 철저히 제압분쇄하고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려는 우리의 의지는 강렬하다.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지혜와 힘을 합치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고 넘지 못할 장벽이 없다.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현시기 무엇보다 절박하게 나서는 과업은 민족자주의 흐름에 역행하는 남조선당국의 사대매국, 외세의존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자주의식이 민족부흥의 위력한 무기이라면 사대와 외세의존은 민족자주의식을 좀먹고 민족자강력을 마비시키는 위험한 사상적독소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지 않고서는 조국통일위업을 민족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전진시켜나갈수 없다. 지난날 우리 민족이 일제에 의해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피눈물나는 력사와 남조선이 세기를 이어 오늘도 미국의 식민지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비극적인 현실은 사대와 외세의존이 민족의 운명을 망쳐먹는 화근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사대와 외세의존에 환장하면 민족을 등지고 외세에 아부굴종하는데서 살길을 찾게 되며 나중에는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는 역적질도 서슴지 않게 된다.

북남관계의 현 파국적실태는 사대와 외세의존이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얼마나 커다란 해독적후과를 끼치고있는가를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는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애국의 의지밑에 불미스러운 모든것을 덮어두고 남조선당국에 대화와 협상으로 대결상태를 해소해나갈데 대하여 제안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대화제의를 한사코 외면하면서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있다.

괴뢰들은 대화와 협상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는 우리의 애국애족적제안에 대해 《위장평화공세》라느니,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제재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술수》라느니 하고 악의에 차서 헐뜯으면서 모처럼 마련된 북남대화의 기회를 또다시 망쳐놓고있다. 한편 외세와의 공조로 동족을 해칠 흉심밑에 《대북압박외교》라는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실행에 총발동되여 그 어느때보다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집권자는 그 무슨 《현충일추념사》라는데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추진》으로 《제재와 압박을 지속시킬것》이라고 공언하였는가 하면 새로 취임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사령관앞에서 북침을 위한 미국과의 《련합방위태세유지》에 대해 게거품을 물고 떠들어댔다.

집권자부터가 치마자락이 닳도록 어기저기를 싸돌아치며 외세에게 《북핵압박》과 《제재공조》를 구걸하고있으니 괴뢰외교부, 통일부, 국방부패거리들도 저마끔 외세의 바지가랭이에 매달리면서 반공화국압살을 극성스레 청탁하고있는것이다. 우리의 대화제의를 뿌리치고 외세에 빌붙으며 《대북압박외교》라는 어리석은 대결망동에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괴뢰패당의 망동이야말로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통일의 앞길을 힘차게 열어나갈데 대한 동족의 호소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이다.

외세의존에 환장한 남조선당국의 북침불장난소동도 조국통일의 앞길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 민족의 운명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최근 미제침략군의 핵잠수함을 남조선에 끌어들인 괴뢰호전광들은 미일상전들과 함께 한도미싸일방어련합훈련이라는것까지 벌리려 하면서 북침3각군사동맹구축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괴뢰당국의 외세의존과 북침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의 파국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전쟁위협만 날로 고조되고있다.

현실은 외세에 의존하고 그와 공조하면 북남관계는 파국에 치하고 핵전쟁의 위협도 가실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자기 민족의 힘을 믿고 자기 민족과 마주앉아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이 더는 미룰수 없는 사활적요구로 제기되고있는 지금이야말로 남조선당국이 동족의 편에 서서 통일의 길을 함께 가겠는가 아니면 외세와 함께 비참한 파멸을 당하겠는가 하는 갈림길에서 책임적인 선택을 해야 할 시각이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애국애족적호소에 계속 도전하면서 외세와의 반공화국대결공조를 더욱 강화한다면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련석회의의 호소를 따라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외세와 사대매국세력의 반통일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것이다.

은정철

싸이버테로장본인들의 파렴치한 나발

남조선집권세력이 또다시 《북싸이버테로》니 뭐니 하고 우리를 모해하는 모략과 날조의 궤변대결북풍을 요란스럽게 두드리며 사회를 소란케 하고있다. 며칠전 괴뢰경찰이 우리가 남조선민간기업의 군수산업관련자료들을 빼냈다는 터무니없는 나발을 불어대면서 그 무슨 《북싸이버테로》에 따른 《대비책강구와 보안강화》에 대해 떠들어댔던것이다.

그야말로 유치하기 짝이 없다. 괴뢰패당의 망동은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에게 《싸이버테로》의 감투를 씌우고 그것을 구실로 동족대결소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도발광대극이다.

지금 리성있고 상식있는 사람들은 괴뢰경찰이 운운한 《북싸이버테로》라는것이 사물현상에 대한 초보적인 판별능력도 없는 저능아들의 나발이라고 코웃음을 치고있다.

그 무슨 《북싸이버테로》설이라는것은 벌로 새삼스러운것이 아니다. 최근년간 남조선의 보락군들이 들고나온 《북싸이버테로》사건이라는것은 수두룩하다. 농협은행전산망마비사건, 3.20해킹공격사건, 서울대학병원전산망해킹사건 등이 바로 그러하다. 괴뢰들이 해킹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무작정 《북소행》이라고 고아대며 모략에 광분했지만 종탕에는 그 모든것이 동족대결에 환장한자들의 남조국으로 판명되여 개코망신만 당하였다. 지어 이자들은 남조선에서 대규모정전사태가 발생해도 《북소행》을 떠들고 괴동풍같은 원자력발전소들이 멎어서도 《북싸이버테로》라고 여론을 어지럽혔다. 그러다가 제김에 메사해지군 하였다.

이번 사건 역시 마구잡이로 동족을 물어뜯는 너절한 악습을 버리지 못한 반공화국모략광신자, 치졸한 협잡군들의 도발자작극이다.

테로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심리를 악용하여 우리를 모해하고 동족에 대한 적대기운을 극구 고취함으로써 대세에 역행하는 저들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을 합리화하고 대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내외에서 날로 높아가는 북남관계개선요구를 짓밟아버리려는것이 괴뢰패당의 흉심이다.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이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북남관계개선노력에 도전하며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대북압박》이니 뭐니 하고 그 어느때보다도 미쳐날뛰고있지만 차례지는것은 내외의 규탄과 비난, 조소뿐이다. 악에 받친 괴뢰패당은 저들의 동족대결망동에 그 어떤 정당성을 부여해볼 심산밑에 또다시 다 낡아빠진 《북싸이버테로》설을 들고나오며 소란을 피우고있는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제 허물을 드러내는 바보같은짓이다.

남조선이야말로 세계최악의 싸이버테로범죄의 란무장이다. 괴뢰정보원이 《북군 5163부대》라는 위장명칭으로 외국의 업체로부터 최신해킹프로그람을 사들여다 수많은 대상들의 콤퓨터와 손전화기 등을 불법감시해온 사건은 이미 지난해에 폭로된 사실이다. 이에 대해 괴뢰당국자들이 《북싸이버테로》에 대비하기 위한것이니 뭐니 하고 변명하였지만 통할수 없었다. 이 사건은 싸이버테로에 환장한 괴뢰패당의 추악한 정체를 날날이 폭로해주었다. 어디 그뿐인가. 서울시장자리를 따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야당후보의 인터네트홈페지에 해킹공격을 가한 그 유명짜한 싸이버테로사건의 장본인도 다름아닌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다. 지금도 청와대안방주인은 정보원의 불법적인 도청, 감청을 계속 요구하고 승인해주면서 당국주도의 싸이버테로범죄를 적극 조장하고있다고 한다.

집권세력자체가 《정권》안보와 권력유지를 위해 비렬하게 싸이버테로범죄에 거리낌없이 매달리고있으니 온 남조선사회가 싸이버테로의 란무장으로 화하고 도처에서 무시로 별의별 해킹사건들이 다 터져나오는것은 당연한것이다.

이번에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북싸이버테로》설을 들고나온 리면에는 바로 이런 세계적인 싸이버테로범죄의 소굴 남조선의 더러운 몰골을 가리우고 여론의 이목을 우리에게로 돌려 불순한 야망을 실현하려는 모략군들의 서툰짜리 계책이 깔려있다. 괴뢰패당이 아무리 독청을 돋구며 《북싸이버테로》설을 내들려도 거기에 속아넘어갈 사람은 없다. 그것은 오히려 남조선괴뢰들이야말로 동족압살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그 어떤 모략과 날조도 서슴지 않는 인간추물들이라는것을 반증해줄뿐이다.

남조선당국은 그 무슨 《북싸이버테로》니 뭐니 하는 허튼 나발을 계속 불어대다가는 더 큰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리효진

당국의 부당한 정책을 반대하여

영국에서

영국대학생들속에서 당국의 학비인상계획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9일 이 나라에서 발표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86%가 학비를 인상하려는 당국의 그릇된 계획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현재 이 나라에서는 대학생들이 한해 평균 9 000£의 학비를 내야 한다고 한다.

그리스에서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8일 각계층 근로자들이 당국의 부당한 긴축조치에 항의하여 파업들을 일으켰다. 파업들에 참가한 교육, 보건, 운수부문 등의 근로자들은 당국의 긴축조치로 일자리축감소동이 계속 벌어지고 자기들의 생활이 더욱 악화되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파업으로 철도와 뻐스운행이 중지되는 등 교통이 마비되였다.

일본에서

일본의 오끼나와현의회 무소속의원들이 10일 주일미군범죄가 계속 일어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주일미국대사관과 일본정부에 항의문을 보냈다. 항의문은 지난 4월 이전 미해병대원이 오끼나와녀성을 강간하고 살해하여 숲속에 내다버린데 대해 준렬히 단죄하였다. 항의문은 후텐마미공군기지를 나고시 헤노꼬로 옮기는것을 반대하였으며 현에서의 미군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편 일본에서 《안전보장관련법》을 반대하는 기운이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8일 오사까부와 나가사끼의 주민들이 아베정권을 재판에 기소하였다. 100여명의 원자탄피해자들을 포함한 수백명의 각계층 주민들은 《안전보장관련법》이 정화를 계살려는 자기들의 념원을 무참히 짓밟고있다고 단죄하고 정부는 그에 대해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 법이 나라에 또다시 전쟁과 핵참화를 불러올수 있다고 하면서 당장 폐지할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일본에서는 《안전보장관련법》과 관련한 재판소송이 전국적범위에서 벌어지고있다고 한다.

또한 일본 도쿄에서 5일 대중적인 반정부시위가 벌어졌다. 국회청사앞에서 진행된 시위에는 수천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아베정권을 타도하라》, 《국민정치를 실행하라》 등의 글들이 씌여진 구호판들을 들고 부당한 세금인상조치와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는 현 정권을 규탄하면서 아베의 사임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뽀르뚜갈에서

뽀르뚜갈의 리스봉에서 1일 당국의 세금조치를 반대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국회청사앞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보건부문 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자기들의 처지가 더욱 악화되고있다고 하면서 불평등한 세금조치를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프랑스에서

프랑스의 빠리에서 14일 로동법개정을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가 벌어졌다. 7만 5 000명의 각계층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그들은 거리들을 행진하면서 당국의 부당한 로동법개정획동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경찰들이 탄압에 광분하던 끝에 10여명을 체포해갔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마쟈르에서 당국의 교육정책을 반대하여 시위

계속되는 테로악몽, 그에 대처한 국제적움직임

세계가 테로악몽속에 깊숙이 빠져들고있다.

지난해 11월 빠리련쇄테로공격사건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올해에 들어와 류혈적인 테로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지난 3월 벨지끄의 수도 브류쎌에서는 련이은 폭탄테로사건으로 30여명이 목숨을 잃고 270명이 부상당하였으며 비행장과 지하철도역 등이 모두 폐쇄되고 주민들이 긴급소개되는 등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5월 한달동안에만도 이라크와 수리아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낸 류혈적인 테로사건들이 련이어 발생하였다.

이달에 들어와서도 형편은 마찬가지이다.

지난 1일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쇼의 한 호텔에서 테로공격으로 10여명이 죽고 2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로부터 며칠후 까자흐스딴의 악또베시에서도 테로행위가 있었다.

련쇄적으로 일어나고있는 테로공격사건들은 국제사회가 반테로투쟁에 공동으로 대응해나설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여러 나라들에서 국가의 안정을 파괴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 살해하는 테로분자들을 소탕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고있다.

수리아가 반테로투쟁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수리아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는 어느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테로와의 투쟁을 계속 강화할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수리아전쟁은 불순세력들을 규합하고 그들과 협력하고있는 외부세력에 의해 강요된것이라고 까밝히고 수리아인민이 전쟁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외부세력들이 전쟁을 강요하기 때문에 반테로전은 계속되고있다, 테로가 어떤 외피를 쓰고 어느 장소에서 감행되든 그것을 뿌리채 박멸하기 전에는 류혈적인 전쟁이 중단되지 않을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란에서도 테로반대투쟁을 강화한 결과 시스탄 발루치스탄주에서 테로공격을 계획하고있던 5명의 테로분자들을 적발소탕하였다. 한편 이란이슬람혁명근위대는 나라의 서북부지역에서 반테로작전을 벌려 5명의 악당들을 소멸하였다.

알제리가 반테로투쟁에서 련일 성과를 거두고있다.

얼마전 메데아도에서 반테로작전을 벌려 4명의 테로분자를 소탕하고 4명을 체포하였으며 많은 무기와 탄약들을 압수하였다. 이 나라에서는 이보다 앞서 진행한 반테로작전시에도 전과를 올리였다.

에질트군대가 시나이반도의 북부지역에서 2일간에 걸쳐 반테로작전을 벌린 결과 36명의 테로분자들이 소멸되고 무기고가 파괴되였으며 테로분자들이 사용하던 10여대의 통전기재들이 불수되였다.

뜌니지에서는 최근에 있은 반테로작전과정에 악당무리를 체단한것 등 일련의 성과를 거두었다.

까자흐스딴에서는 올해 6월 9일이 애도의 날로 선포되고 반테로작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취해졌다.

반테로투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련대성이 강화되고 호상협조가 날로 긴밀해지고있다.

이란국방 및 무력병참상은 반테로짬빠니아는 각성과 단결, 강인성과 신속성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이란정부는 테로와의 투쟁을 적극 벌리고 테로로 피해를 입는 나라들을 지원하는데서 확고한 립장을 견지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수리아정부와 인민에 대한 원조를 계속 강화할 정부의 립장도 밝히였다.

지중해연안나라들은 마로끄에서 회의를 열고 반테로투쟁에서 협조를 강화할데 관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은 최근 날로 우심해지는 테로와 극단주의의 위협에 대처하여 지역나라들이 단결과 협조, 공동행동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마로끄외무성도 성명을 발표하여 반테로투쟁에서 국제적협조를 강화할것을 주장하였다.

성명은 지금 테로분자들이 세계도처에서 폭행을 일삼고 불화와 혼란을 조성하고있는데 대해 단죄하고 테로위협에 대처하여 국제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테로를 근절하고 지구상에 평온을 가져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다.

본사기자 박송영

ㄱ-61099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